



오륙도 글밭

북한이탈주민으로 산다는 것

벚꽃이 만개한 주말, 아이들과 또 남편과 함께 꽃구경을 나왔다. 하늘하늘 불어오는 봄바람에 흔들리는 벚꽃을 바라보노라니 문득 고향생각이 떠오른다.

내 고향은 한반도 제일 위쪽에 자리 잡은 함경도이다. 두만강 푸른 물이 감돌아 흐르고 봄이면 백삼구 꽃이 하얗게 피어나는 무척이나 아름다운 곳이다. 경치가 너무 좋아서 선녀들이 내려와 놀았다는 옛 전설이 내려올 만큼이나 이쁜 고장이다. 하지만 그 땅에 고난의 행군이라는 죽음의 시련이 닥쳐오면서 나의 꿈과 행복은 산산조각이 났다. 오직 정부에서 주는 배급으로만 먹고살던 국민들은 갑자기 끊긴 배급으로 인해 갈팡질팡했고 급기야 여기저기서 굶어죽는 사람, 추위에 얼어 죽는 사람들이 즐비해졌다. 우리 집 역시 이 고생을 비껴갈 수는 없었다.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체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쥐도 새도 모르게 어디론가 잡혀가야 했다. 북한은 외국과 미디어를 완전히 차단한다. 오직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우상숭배가 국민들의 첫째가는 혁명과업이라고 세뇌를 시켰다. 몇 년에 걸친 이 고난은 나에게 더 이상의 희망을 주지 않았다. 나를 희생해서라도 나의 가족들을 살리고 싶었다. 오직 그 마음 하나만을 안고 무작정 두만강을 건너 중국 땅으로 향했다. 쏟아지는 네온불빛을, 화려한 거리가 즐비했던 신분이 없는 나는 계속 숨어 다녔다 했고 늘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아야 했다.

그러다 친만다행으로 먼저 한국에 간 친구와 연락이 닿아 나는 목숨을 걸고 한국행에 나섰다. 혹시라도 잡혀 북송이라도 되면 나는 물론이고 죄 없는 가족까지 몰살당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길이었지만 나

에게는 더 이상의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렇게 4개월 동안 중국~미얀마~라오스~태국 등 모진 고생 끝에 먼 길을 돌고 돌아 드디어 대한민국에 올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아뻏을 잃은 아픔을 겪어야 했다. 그렇게 자그마한 가방 하나를 가지고 부산에 도착해 제2의 삶을 시작할지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방에서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울고 낯선 환경에 대한 두려움으로 잠 못 들던 25살의 내가 어느새 두 아이 엄마로 워킹맘으로, 통일한국의 사회복지사를 꿈꾸는 대학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돌아켜보면 나에게 "고향이 어디세요?"라는 질문이 가장 두려웠고 긴장했던 나날들이 있었다. 부산에 온지 얼마 안 되어 컴퓨터 자격증을 따기위해 직업전문학교에 다닐 때의 일이다. 수업 첫 날 다들 자기소개할 하는데 나는 끝내 고향을 밝히지 못하고 이름과 나이만을 얘기했다. 그러다 어느날 동료 수강생이 나에게 '고향이 어디냐, 혹시 중국조선족 아니냐'고 물었다. 순간 당황해 엉겁결에 강원도에서 왔다고 거짓말을 해버렸다. 그 이후로 나는 말 수가 줄고 마음의 문을 닫고 혼자가 되어 버렸다.

오히려 북한에서 왔다고 말하면 뒤에서 비웃을 것만 같았다. 고향을 선택해서 태어날 수도 없는 일인데 나는 왜 북한에서 태어났을까하며, 원망과 후회도 많았다. 편견을 가지고 북한이탈주민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속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것은 내가 넘어야 할 산이었고 풀어야 할 매듭이었다. 그때부터 나는 오직 능력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공부하며 부족한 나를 하나씩 채워나가기 시작했고,

그 결과 3개월 만에 학원에서 두 명밖에 못 따낸 전산회계 1급자격증과 컴퓨터자격증 3개를 취득했다.

학원 수료 후 내 생애 처음 취업 면접이란 것을 봤다. 두근거리는 마음을 다잡으며 회계사무실을 노크했지만 탈북자라는 이유로, 말투가 조선족 같다는 이유로 탈락하고 말았다. 오기가 생겼다. 그래서 연필을 입에 물고 아나운서의 말을 반복해 들어가며 발음 연습에 북한사투리를 고치기 위한 피나는 노력을 했다. 그덕에 이제는 부산사람보다 부산말을 더 잘하게 됐다.

오늘 아침도 늦잠꾸러기 두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버스에서 지하철로 환승하며 일터로 향하고 있다. 나도 사람들과 함께 당당히 발걸음을 맞추며 마음 속으로 휘파람을 불며 앞으로 더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아이들을 재우고 난 뒤 강의를 듣는다. 공부하고 과제물을 챙기며 주말에는 부산시청 녹음광장에서 노인급식 자원봉사와 보육원 자원봉사를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나에게서는 통일한국의 사회복지사라는 꿈이 있

기에 그 꿈을 이룰 때 까지 힘들어도 주저앉지 않을 것이다.

한국정착생활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은 '감사합니다'이다. 감사함을 알고 보니 북한 땅에서 태어난 것도 감사하고 그로인해 소중함이 무엇인지를 일찍 깨닫게 된 것 또한 감사하다. 이렇게 예쁜 가족과 함께 바다가 있는 부산에서 살고 있음 또한 너무도 고마운 일이다. 지금은 누가 "고향이 어디세요?"라고 묻는다면 당당히 '함경도'라고 밝힐 수 있다.

나에게 있어 북한은 생명을 준 땅이지만 대한민국은 나를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해준 첫출가와 같다고 생각한다. 목숨을 걸고 얻은 너무나 소중한 자유이며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빠의 목숨과 맞바꾼 자유다.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얻은 오늘이기에 그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오늘도 출근길에 나선다. 백삼구 꽃 하얗게 피어나는 내 고향에 가서 부모님과 친구들과 오늘을 추억하게 될 통일의 그날이 머지않아 오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김미숙(북한이탈주민)

* 김미숙(가명) 씨는 현재 남구에 살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입니다. 북한에 남은 가족들의 행여 발생하지 모를 피해를 막기 위해 실명, 얼굴 사진, 나이 등을 밝히지 않은 점 주민 여러분의 이해 바랍니다.

북한이탈주민 남구에 20명 거주

한반도 안보위기를 해소할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27일 판문점에서 열림에 따라 대한민국 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해 남한에 정착한 이들을 지칭하는 용어는 시대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바뀌었다.

90년대 이전까지는 귀순자 혹은 귀순용사로 칭하다 90년대 중반 이후 경제난 등으로 북한 탈출이 급증하면서 탈북자로 고쳐 불렀다. 이후 '새로운 터전에서 삶을 시작하는 사람들'이란 의미인 새터민으로 순화해 부르다 2008년부터는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으로 호칭을 공식화했다. 북한이탈주민은 현재 3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북한이재단이 지난 2월말 발표한 2017년도 북한이탈주민정착실태조사(2만 6430명 조사)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 중 74.9%가 여성이다. 또 40대가 가장 많고 이어 30대, 20대 순이며 10대도 2.4%나 됐다. 75.9%가 남한에 5년 이상 거주하

고 있으며 63.3%가 서울 등 수도권에 살고 있다. 전체 북한이탈주민 중 3.7%만 부산에 살고 있고 우리 남구에는 불과 20명의 귀순수만 거주하고 있다. 남구는 관내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돕기 위해 매년 분기마다 간담회를 열어 이들을 격려하고 있다.

73.6%가 남한생활에 만족하고 있으며 3.7%만 '불만족한다'고 답했다.

불만족의 이유로는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하는 이유가 가장 컸고(31.6%) 이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사회의 차별과 편견(19.2%)을 꼽았다. 더 나은 남한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는 취·창업지원(24.6%), 의료지원(17.9%), 주택문제 지원(13.2%) 순으로 답했다.

북한이탈주민 61.2%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고용률은 56.9%이며 직업유형으로 단순노무가 21%로 가장 많았다.

아른 역사 잠든 성지곡 수원지

바쁜 생활 속에 시간을 내어 초음 성지곡 수원지에 들러 등산을 하겠다. 수목이 울창한 숲에서 산줄기의 물이 흐르며 저수지가 된 호수에 4월의 봄꽃나무에서 피고 진 꽃잎이 호수에 떨어져 저마다 아름답게 수를 놓았다.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이 물을 가두고 공사를 한 뒤 백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성벽 같은 방파제는 호수를 지키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얼마나 완벽하게 했는지 외벽 둘 사이에 물기 하나 없었다. 우리 민족이

일본에 나라를 뺏겨서 식민지 생활을 겪어 치를 떨었지만 일본인들의 완벽함에 반발해 점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저수지를 지나 높게 자란 편백나무 숲을 걸어본다. 일본인들이 우리 나라를 침략해 식민지로 삼고 성지곡을 수원지로 조성하고 편백나무를 심어 영원한 일본인들의 나라로 누리려고 했으나, 백년이 흐른 지금 우리 민족이 나라를 되찾아 우리 민족이 누리고 있으니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우리 민족의 아름다운 나라로 맥을 영원히 이어나가기를 염원한다.

전순임(문현동 주민)

5월 남구체육회 무료교실 안내

교 실	요일	시 간	정원	장소	운영기간	신청기간
생활체육 배드민턴 무료교실(기초반)	월·수·금	18:00~18:50	40명	남구국민체육센터	06. 01. ~ 06. 30.	5. 07. ~16(신규등록) 5. 17. ~28(재등록) 09시부터 선착순 마감(방문접수)

* 해당프로그램 신규회원 우선접수
(신규회원은 해당 프로그램 개강일 3개월이내 등록한 적이 없는 회원)
* 접수 : 남구국민체육센터 방문접수 (09시~선착순마감)
* 문의 : 남구국민체육센터 ☎626-8200

	월~금	06:00~06:40	00명	구청구민공원
생활체육 아침광장교실	월~금	07:00~07:40	00명	장자산체육공원(용호동 이기대)
	월~금	06:00~07:00	00명	부산환경공단남부사무소. 풋살경기장

* 아침광장교실 문의 : 남구체육회 ☎644-7330, 612-7330, 622-7330

독자의 소리

부산남구신문편집실 ☎ 607-4065, 4075, FAX 607-4374, 1225honey@korea.kr

남구청 자전거 3인방 국토종주 자전거길 점검

낙동강 하류 132km 2박3일 체크

이용자 입장에서 자전거길의 불편 및 위험요소를 찾아 개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조직한 '2018 국토종주 자전거길 현장점검 투어단'에 남구청 직원 3명이 선발돼 최근 '현미경' 점검을 마쳤다. 4대강 등 8개 구간 1054km를 점검하는 이번 공모에 전국의 자전거동호회 128개팀이 지원해 이 가운데 8개 팀이 선발됐다.

이동호(토지관리과), 박경봉(세무1과), 반정훈(세무2과) 주무관은 지난 19~21일 2박3일간 자전거를 타며 낙동강 하류(함천장남보~울속도) 132km 구간 내 안내표지판 파손, 도로상태 불량, 화장실 등 편의시설 관리 실태 등 20여 건의 문제점을 파악했다. 또 종주길에서 만난 자전거 동호인들에게 불편·건의사항 등을 직접 청



졌다.

이들 세 명은 구청 내 자전거 동호회 D&D 소속으로 국토종주 자전거길을 수차례 완주한 경험이 있다. 박경봉 주무관은 "다른 지자체의 자전거 시설과 관리 상태 등을 점검하면서 우리도 민원인들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하고 있는가 반성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오륙도 시·종점으로 하는 '56km 걷기대회'



부산의 걷기 좋고 아름다운 길을 두고 '갈매길'이라 부른다. 처음 어색했는데 이제 일에 착각 않는다. 갈매길에 대한 필자의 예정은 좀 나쁘다. 갈매길 탄생에 첫 신호탄을 올랐기 때문이다.

10년 전 지역일간지에서 기자로 일하던 시절, 필자와 무관한 취재 지시가 떨어졌다. '걸을 수 있는 부산 해안길을 그려보면 어떨까'는 타 부서 데스크의 주문이었다.

제주도에서 발화한 올레 열풍이 막 불에 올랐을 때다. 지도를 펼쳐 난대종으로 짙어도 부산 해안선은 족히 200km는 넘었다. 그 보다는 길이 있는지가 의문이었다. 대동여지도의 김정호가 이런 심정이었을까. 딱히 길에 조여가 있는 것도, 체력이 뒷받침되는 것도 아닌데 필자에게 일이 맡겨진 데는 집에 종고스쿠터가 한 대 있어서다.

그렇게 털털 거리는 스쿠터를 타고 강서구 가덕도부터 기장군 고리원전까지 부산의 바닷길을 훑었다. 스쿠터가 가지 못하는 길은 두 발로 걸어 사인 찍고 악도를 그렸다. 해변을 올라야 할 때도 있었다. 이기대 해안산책로도 이때 처음 걸었다.

구도의 길을 걷는 수형승처럼 차츰 '갈'이 보였다. 풀담 두른 갯마를, 오징어 떼장, 물결치는 해녀들과 그 위를 나는 갈매기떼 솟사위, 저녁별 갈린 백사장과 장엄한 일출을 모두 부산의 바닷길에서 만났다.

특히 고기잡이배가 머무는 나쁜 한 포구 바로 옆 마천루 빌딩처럼 옛것과 새것, 문명과 자연이 뒤섞인 역설적 풍경은 부산에서만 목격됐다. 제주 올레와는 또 다른 매력이었다. 길을수록 '되는 장사'라는 판단이 섰고 눈발에 길을 내는 심정으로 특집 기사를 내보냈다. 지금의 갈매길은 그렇게 시작됐다.

이달 들어 부산관광공사에서 이기대 해안길을 포함한 갈매길 3곳

을 정해 관광상품화를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9개 코스 21개 구간 278.8km, 갈매길 칠백리가 완성됐다. 팔자가 없던 갈매길 전도사로 감회가 특별할 수밖에 없다.

열풍 맞은 갈매길의 화룡점정은 뭇가. 동해와 남해 분기점인 오륙도를 시작과 종점으로 하는 중앙거리 트레일을 만들면 어떨까. 오륙도에서 따른 '56km 오륙도 걷기대회'. 해거를 출발해 다음날 아침에 도착하는 코스로 제격이다. 정패를 닦는 레이스가 아닌 '나를 찾아 떠나는 무박2일 걷기 여행'으로 말이다.

행사를 굳이 관청이나 단체가 맡지 않아도 무방할 게다. 걷기동호회에서 추진해 정례화 할 수 있고, 아예 개인이 직접 코스를 발굴해 공유할 수도 있을 것이다. 는 그러하듯 시작은 보잘 것 없을지 모른다.

퀘어야 보배인 것은 구슬만은 아니다. 길도 그렇다. 퀘고 있을 때 길은 비로소 생명을 얻는다. 불변진리다.

부산남구신문 편집장

영화	상영일시	상영정보
라라랜드	4.25.(수) 19:00	뮤지컬 영화, 자막, 12세
멜로&스피치	5.06.(일) 14:00	애니메이션, 더빙, 전체관람
레고	5.13.(일) 14:00	애니메이션, 더빙, 전체관람
로빈슨 가솔	5.20.(일) 14:00	애니메이션, 더빙, 전체관람
투브라더스	5.27.(일) 14:00	영화, 자막, 전체관람

남구도서관 무료 영화상영

* 영화관람은 선착순 무료 입장 ☎607-6574



우리지역 일자리 알림판

☞2018. 4. 23. 기준☜

회사명	근무지	모집직종	모집인원	모집기간	임금조건	연락처
케이비유니온 개발(주)	문현동	경비원	2명	18. 4. 23 ~ 채용시	월급 175만원	051-955-5128
라온 제1주유소	김안동	주유원	1명	18. 4. 20 ~ 채용시	시급 7,530원 이상	051-637-5157
용당요양병원	용당동	병원급식조리사	1명	18. 5. 31일 까지	월급 143만원 이상	010-4577-2017
타이어테크 용호점	용호동	자동차 경정비원	1명	18. 4. 19 ~ 채용시	월급 25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010-3755-9757
우용문	문현동	사무보조원	1명	18. 5. 31일까지	연봉 2060만원	070-4060-8793
부산고려병원	대연동	단체급식보조원	1명	18. 4. 18 ~ 채용시	월급 245만원	051-930-3900
부산고려병원	대연동	병원급식조리사	2명	18. 4. 18 ~ 채용시	월급 250만원 이상 257만원 이하	051-930-3900
㈜제니엘유통	우암동	하역적재종사원	1명	18. 4. 18 ~ 채용시	시급 7,530원 이상	051-911-0303
한화승강기(주)	대연동	엘리베이터 설치, 정비원	1명	18. 4. 18 ~ 채용시	월급 170만원 이상	051-626-1584
가이카를리나 대연점	대연동	자동차 정비원	1명	18. 4. 17 ~ 채용시	월급 200만원 이상 250만원 이하	051-642-0077

* 대한민국 모든 일자리 정보(worknet)와 연계
* 남구 취업정보센터 ☎607-4347~8 Fax. 607-4349

산행이 물 따라				
산행을 떠나요				
(2018. 5.)				
구분	산악회	산행일자(요일)	산행장소	연락처
대연동	연포산악회	5/13(일)	전남 동악산	010-3832-5971
	한울림산악회	5/13(일)	보성 일리산	010-9975-8688
	약천산악회	5/16(수)	지리산 비래봉	010-4655-4370
	백호산악회	5/9(수)	함천 황매산	010-5621-4007
	대오산악회	5/13(일)	지리산 비래봉	010-8557-0479
	대산산악회	5/12~13(토~일)	홍도~홍산도	010-6252-5641
용호동	금강산악회	5/6(일)	황매산 황학재	010-3865-9051
	용신산악회	5/13(일)	지리산 천왕봉	010-4657-7051
	청산산악회	5/6(일)	지리산 비래봉	010-8008-2087
	해월산악회	5/20(일)	경북 갑장산	010-7154-3166
	기세기산악회	5/13(일)	전남 봉황산	010-7563-1943
	여남산악회	5/13(일)	남원 봉황산	010-3855-6569
문현동	신선산악회	5/13(일)	지리산 비래봉	010-6520-0167
	용산산악회	5/27(일)	충남 칠갑산	010-2124-9329
	여명산악회	5/6(일)	함천 가야산	010-3554-4382
	부산산악회	5/6(일)	보성 일리산	010-7223-2277
	글로벌산악회	5/20(일)	대구 비슬산	010-4752-2940
	청심산악회	5/27(일)	정동진 바다무채길	010-2736-7553
김안동	산이출아	5/27(일)	충남 용문산	010-9329-3560
	용호산악회	5/27(일)	울진 울봉산	010-6266-8525
	용마산악회	5/13(일)	고성 거름산	010-2692-1170
	녹색산악회	5/27(일)	보성일리산	010-7342-3426
	오솔길산악회	5/19~20(토~일)	안동청산도	010-8287-1192
	우암산악회	5/6(일)	함천 황매산	010-3535-5848
문현동	문현2동산악회	5/13(일)	함천황매산	010-2902-8322
	원뿌리산악회	5/20(일)	원주 소금산	010-4564-7769
	산누리산악회	5/6(일)	영덕 불루로드	010-4035-3432
	문산산악회			010-8466-8662

* 산행일정은 산악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산남구신문

1996년 1월 1일 창간

발행처 부산광역시 남구 / 편집주간 김 성 한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19(대연동)
남구청 대표전화(051)607-4000 편집실(051)607-4065, 4075 / FAX(051)607-4374

부산광역시 남구 홈페이지 : http://www.bsnangju.go.kr

인쇄처 부산일보사 / 월간 <비매물>

본지는 신문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